

시니어 순모임(2 월)

- ❖ 찬 양--- 찬송가 308 장 (내 평생 살아 온 길)---- 다같이
- ❖ 대표기도 ----- 말은이
- ❖ 감사제목 나누기 ----- 다같이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 나누기)
- ❖ 기도제목 나누기 ----- 다같이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 ❖ 말씀나누기 ----- 다같이
- ❖ 합심기도 ----- 다같이
 1. 블레싱 파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과 다음
다음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당이 되게 하옵소서
 2. 미국의 새정부가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이루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 ❖ 광고 ----- 말은이
- ❖ 주기도문 ----- 다같이

📍 알려드립니다.

1.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3 월 16~22 일) 가운데
성령충만과 기적과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시니어 특강 : 3 월 9 일 주일 오후 12 시, 시니어 사랑방
"Five wishes :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법"
강사 : 고양곤 장로(로템나무 회원)

308

내 평생 살아온 길

조용기, 1983

보통으로

우리로 영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니
(요일 3:16)

은혜와 사랑

내 평생 살아온 길: IREG.
김성태, 1983

1.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2. 나 같이 못난 인간 뒤를 돌아보오니
3. 예수 님 나의 주 사랑의 주 하나님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 뿐입니 다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 서 살겠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나의 은인 생애를 주 사랑의 동행하면 신서

골고다 의 언덕길 주님 바라보니 다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에베소서 1:16-21 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머물며 목양에 마음을 쏟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믿음과 사랑에 대한 두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5-16 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첫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것,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두번째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사이에 나타난 사랑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랑은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늘 이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첫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감사를 드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에베소교회를 바라보며 드리는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모든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17 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때 안다는 것은 지식적이고 체계적인 앎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열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영이 주어 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 당신을 보게 할 때만 가능합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하심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나를 바르게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자신을 알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둘째,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18 절 말씀입니다. “18 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즉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소망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성도가 누리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합니다. 천국 기업의 소망이 있으면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은 죽음을 초월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위대한 힘이 이 소망에서 나옵니다.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

에베소서 1:19 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당시에 능력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황제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요,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요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 없음이 아니라, 온 우주 통치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순간 세상은 나를 지배하는 힘으로 다가옵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 질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